

허진석의 스포츠 라운지



그리스 델포이 경기장에서 멀리 보이는 김나시온 터. 김나시온은 영어를 쓰는 나라에선 체육관, 독일에선 학교를 뜻하는 김나지움(Gymnasium)의 어원이다. 말하자면 김나시온은 고대 그리스의 체육대학이었다.

(사진 허진석)

신전·극장보다 더 높은 젊음의 제단, 델포이 스타디온

〈경기장〉

허진석 한국체육대 교수



제우스는 세상의 중심이 어딘지 알고 싶었다. 성공한 지도자는 기준이 분명하다. 위대한 임금은 세상을 표준화한다. 함무라비, 진시황이 거저 이름을 남겼겠는가. 제우스는 레슬링으로 아버지를 이기고 세상을 차지했다. 공부 많이 한 신이 아니다. 삼각측량 같은 것은 모른다. 하여, 독수리 두 마리를 날려 보냈다. 반대 방향으로 날아간 독수리들은 세상을 한 바퀴 돌아와 다시 만났다. 그곳이 파르나소스 산기슭, 델포이다. 세상의 배꼽 '움파로스'가 여기 있다.

제우스는 아들 아폴론에게 이곳을 맡겼다. 아폴론은 이산의 동굴에 살던 구멍이 피톤을 죽이고 신탁소(神諭所)를 열었다. 델포이 신탁소는 용하기로 이름났다. 그리스의 도시국가 지도자들은 물론 지혜 충만한 철학자들도 델포이의 신탁을 구했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도 고객이었다고 한다. 델포이의 신탁 이야기는 역사와 신화에 고루 등장한다. 문제는 신탁이 들으면 대변에 알 수 있을 만큼 쉽지는 않다는 점이다.

기원전 480년 봄, 제2차 페르시아전쟁이 임박했다. 아테네인들이 델포이의 신탁을 받았다. 첫째, "집과 도시를 버리고 도망쳐라." 둘째, "나무성벽에 의지하라." 누가 이 신탁을 "지상전을 포기하고 해전으로 승부를 걸라"는 가르침으로 들었는가. 아테네인들은 얼마나 답답하고 두려웠을까. 아무튼 결과는 해피엔딩. 아테네 중심의 그리스 연합대가 살라미스 해전에서 페르시아 함대를 무찔렀고, 아테네는 훗날 초강대국으로 떠올랐다.

신탁은 왜 모호한가. 과정을 살펴보자. 신탁을 구하는 자는 목욕재계하고 남성 신관에게 듣고자 하는 내용을 고한다. 무녀(巫女) 피티아가 신탁소 안에서 이 말을 듣고 아폴론에게 전한다. 그 답을 받아 읊조리는데 이것이 신탁이다. 피티아의 읊조림은 잠꼬대 같았다. 그녀는 월계수 잎을 들고 신탁소 바닥에서 피어오르는 증기를 씌었다. 과학자들은

그리스 4대 제전 중 '피티아' 열려 관중석이 직사각형 경주로 에워싸

'세상의 배꼽' 움파로스 있는 곳 델포이 신탁소, 용하기로 이름나

고대 그리스 체대 '김나시온' 터 보며 체육교육의 미래, 신탁 구하고 싶어

이 증기에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에틸렌 성분이 포함됐으리라 본다. 아폴론의 계시는 환각의 결과였을까?

델포이 신탁받은 아테네, 훗날 초강대국 아테네에서 델포이까지는 자동차로 2시간 남짓한 거리다. 하루 네 번 버스가 다니고, 기차도 있다. 델포이는 체육사 연구자에게도 중요하다. 올림피아(올림픽), 이스티미아, 네메아와 함께 그리스의 4대 제전 가운데 하나인 피티아 제전이 열린 곳 이므로, 가장 중요한 대회는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피아였다. 기원전 776년에 처음 기록이 보인다. 나머지 제전은 올림피아와 올림피아 사이에 차례로 열렸다. 플라톤은 젊은 시절 이스티미아 제전에 레슬링 선수로 참가해 두 번 우승했다.

델포이의 경기장은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았다. 신탁소가 있는 아폴론 신전 위쪽으로 한 굽이 돌면 극장이 나온다. 거기서 한참 걸어올라 숨이 잘 때쯤 경기장 외벽이 눈에 들어온다. 관중석이 직사각형 경주로를 막고모양으로 에워쌌다. 스타디온(Stadion)이다. 수용규모는 최대 7000명. 가장 중요한 경기는 단거리 경기인 스타디온이었다. 그래서 경기장도 스타디온이라고 했다. 스타디온은 거리의 단위다. 델포이의 경주로 길이는 178.35m다.

델포이 경기장의 관중석에 앉으면 누구나 가슴이 뭉클할 것이다. 신전보다 극장보다 높은 곳, 파르나소스산의 깎아지른 듯한 비탈 아래 숲으로 둘러싸인 이곳에서 그리스의 젊은이들이 신들에게 젊음을 봉헌하는 제전을 연 것이다. 걸음을 돌이켜 반원형 극장을 내려다보며 걷는다. 그러다 시선을 먼 곳으로 돌리자 사이프러스 나무줄기 사이로 김나시온(Gymnasium)

터가 보인다. 순간 가슴이 찢어진다.

김나시온은 영어를 쓰는 나라에서 체육관, 독일에서 학교를 뜻하는 김나지움(Gymnasium)의 어원이다. 교육의 중심은 체육이었다. 스웨덴의 인문학자 마르틴 닐손은 '헬레니즘 시대의 학교'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그리스 학교에서 체육은 최상의 지위를 차지했다. 다음 약간의 간격을 두고 음악교육, 마지막은 읽기분야의 교육이었다. 그리스 학교의 목표가 보다 높은 일반교양이라고 말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일반적인 시민양성이라고 말해야 옳다." (김경현, '고대 그리스 세계의 체육과 스포츠 문화', 재인용) 뒤쪽이 마음에 걸린다.

닐손의 주장은 앙리 마투의 선행 연구에 대한 반박이다. 마투는 그리스 고전기부터 로마 제국 말기까지의 교육제도를 연구한 프랑크 역사가다. '고대 교육사'는 그 결정체다. 그는 서양의 고전적 교육제도는 헬레니즘 시대에 형성되었다고 보았다. 마투에게 고전교육은 서양교육사의 원형질이다. 고전교육의 핵심은 수사학과 철학이었다. "음악과 체육은 고대 후기에 이르러 거의 절멸한 상태였다. 김나시온에서 배우는 스포츠는 전문적인 선수와 견줄 수 없었다."

체육대학이 김나시온이라면, 마투가 주장하는 고대 후기의 징후를 보이고 있지는 않은가. 뛰어난 고등학교 선수들은 졸업 후 실업이나 프로를 택한다. 야구와 축구 등 프로종목에서 보이는 현상이 일반 종목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체대는 전문체육 전공자가 훈련하는 곳이다. 육상, 수영, 체조 등 기초체육 육성의 책임도 있다. 그러나 1등이 아니다. 지난해 파리올림픽에서는 양궁과 사격 금메달을 따냈다. 가장 잘하는 종목은 골프다. 골프는 건학이념과 무관하다. 현실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종목이지만,

델포이에 황혼이 찾아온다. 반들반들하게 닳은 대리석 포도가 반짝인다. 그 위에서 비틀거리며 학교를, 학생을 생각한다. 새벽훈련으로 시작해 야간 점호로 끝나는 하루. 훈련, 오직 훈련의 반복과 반복. 실업과 프로라는 진짜 엘리트 체육의 도전과 '공부하는 학생'이라는 시대의 요구 앞에서 이 학교, 아니 전문체육 교육의 미래를 짐작하기 어렵다. 다시 길을 되짚어가 신탁을 구하고 싶다. 신탁이 있다 한들 들릴 것인가.

델포이 무녀가 중얼거린 신탁은 남성 신관이 시어(詩語)로 다듬어 고객에게 전했다. 이 과정에도 신이 개입했으리라. 헤르메스일 것이다. 제우스와 마이아 사이에서 태어났으니 제법 지체가 높는데, 캐릭터는 '잡놈'이다. 여행자·목동·옹변·도랑형·발

명·상업·도둑·거짓말쟁이·도박, 그리고 체육의 신. 주된 업무는 전령이다. 신의 뜻을 인간에게 전한다. 신의 언어는 난해한 데다 직접 들었다가는 위험할 수 있다. 헤르메스는 신의 뜻을 풀어서 알려준다. 그에게서 '해석학(Hermeneutik)'이라는 용어가 나왔다.

피티아 제전도, 델포이의 신탁도 로마제국이 기독교화한 뒤 숨이 끊어졌다. 헤르메스는 깊은 동굴 어딘가에서 잠들었을 것이다. 그가 남긴 세속의 일은 현대의 제도가 나눠 맡아야 한다. 필자가 보기엔 대학과 정치와 미디어의 책무다. 그러나 세 곳 모두 의심적이다.

진보든 보수든 스포츠엔 한결같이 무지 체육대학의 선생은 두 종류다. 근육의 기억과 관성에 지배당하거나 현장의 냉혹함에 둔감하거나. 이곳은 모순으로 가득하다. 생각해봐라. 스포츠 지도자는 프로는 물론 실업팀에서도 실적이 나쁘면 당장 물러나야 한다. 대학에서는 교수의 권을 쓰는 순간 아무도 두렵지 않은 개인사업자가 된다. 경쟁이 치열한 정장에서 리스크 제로(0)의 삶을 누린다. 헤르메스의 현신을 기대할 수도 요구할 수도 없다.

정치에게 신은 국민이고, 국민의 요구는 신탁이다. 그들은 왜 귀를 틀어막은 사람처럼 행동할까. 스포츠에 관한 한 진보든 보수든 한결같이 무지하다. 정책이나 방침 따위는 없다. 메달=국위선양이라는 신기루 뿐, 현장은 아노미 상태다. 대한체육회, 축구협회, 배드민턴협회를 보라. 미디어는 그들의 반영이거나 그 반대다. 올림픽이 열린다면 민낯이 드러난다. AI가 지배하는 시대에 의식은 "우리는 대한 건어" "고국에 계신 동포여러분..." "태극권사" 언저리를 배회한다. 육신을 거느린 유명이다.

헤가 했다. 관광객의 무리도 떠났다. 사위가 고요하다. 아폴론도 헤르메스도 델포이의 무녀도 조개처럼 입을 다물고 있다. 이내와도 같은, 푸른 기운이 피어오른다. 아테나의 부엉이가 날개를 펼 시간이다. 신의 영역을 떠나 인간의 세계로 돌아가야 한다. 델포이에서.

〈광주일보와 중앙 SUNDAY 제휴 기사입니다〉

허진석 스포츠 기자로 30여 년간 경기장 안팎을 누볐으며 중앙일보 스포츠부장을 지냈다. 2023년 한국시문학상을 수상하고 여러 권의 시집을 낸 시인이기도 하다.



그리스델포이에 있는 아폴론 신전(위). 이곳의 신탁소는 용하기로 이름났다고 한다. 이탈리아 화가 카밀로 미올라가 그린 그림 '신탁' (아래).

(사진 허진석)





KSA 한국표준협회
KOREAN STANDARDS ASSOCIATION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국제보청기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